《農書輯要》의 吏讀*

李 丞 宰
(聖心女大 敎授)

I

이 글은 《農書輯要》의 吏讀를 정리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農書輯要》는 조선 초기의 이두 자료로서 아직 국어학계에 알려져 있지 않은 중요한 자료이다.

金容燮(1988)에 의해 소개된 이 자료는 朝鮮 中期 以後에 筆寫된 것이므로 一次資料라고 할 수는 없다. 전체가 41면으로 되어 있는데 첫 머리에 붙은 序文 4면과 本文 37면으로 되어 있다.[1]

序文의 제목은 新刊農書輯要序라고 되어 있고, 서문의 끝에 다음의 刊記가 나온다.

(1) 正德丁丑中秋後二日 嘉善大夫行安東大都護府使 李堣 序

따라서 이 서문은 中宗 12년(1517년)에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서문의 중간 부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와 주목된다.

(2) …是書 舊有吏釋 監司金相公安國 深體國家務農桑之意 幷諺書皆益 以諺飜 命吾府…

이 책은 옛날에 吏釋되어 있었는데 金安國이 諺書와 함께 諺飜하라고 安東都護府에 명령하였다는 기록이다. 이 기록에서 中宗 12년(1517년) 以前에 吏釋本《農書輯要》가 이미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金安國은 이 吏釋本을 다시 諺文으로 번역하라고 명령한 것인데 諺解本의 존재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本文의 제목은《農書輯要》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본문은 中宗朝 이전부터 전해 오던 吏釋本을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언제 누가 추가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본문의 마지막 면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3) 右農書 八道通用之法 東西南北 穀種宜土各異 始農之宜不宜 治田之早晩 別無區別 下種耘耔之節 與嶺南煞有異焉 故嶺南農書下有吏錄焉

---

* 이 글은 1992년도 聖心女子大學校 자체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을 밝혀 감사드린다. 또한,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었던 蔡雄錫 교수를 비롯한 農業史硏究會의 여러 會員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

1) 이것은 金容燮(1988)을 따른 것이다. 일반적인 관습을 따른다면 21張이 되는바 이 글에서는 21張을 기준으로 하여 張次를 표기하기로 한다.

위의 農書는 嶺南의 農法과 다른 점이 있어서 嶺南農書의(혹은 嶺南農書는) 뒤에 다시 記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 책이 朝鮮 中期 以後에 필사된 것임이 확실해진다.

이 책의 내용은 金容燮(1988)에 따르면 중국의 농서인 農桑輯要의 내용을 조선 농법에 맞게 발췌하여 편찬한 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농서에서 발췌한 내용을 먼저 싣고 그것을 이두로 번역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바, 체제는 《養蠶經驗撮要》와 같다. 그러나 漢文語句와 吏讀를 글자의 크기로써 구분하여 놓은 것은 《養蠶經驗撮要》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식이다.

그런데 이 책의 吏讀文에는 吏讀를 漢文語句와 같이 크게 쓴다거나 한문어구를 이두처럼 작은 글씨로 써 놓는 등의 잘못이 눈에 띄인다. 이것은 조선 중기 이후의 필사자가 이두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음을 뜻하는데, 이두 부분을 정확하게 판독하여 바로 잡아 놓을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을 정확히 해 놓으면 이 자료의 이두문은 믿을 만한 것이 된다.

이 이두문에는 조선 초기의 이두 자료에서만 나타나는 이두가 용법에 맞게 쓰이고 있는바 이것이 太宗朝에 작성된 것임을 쉽게 단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漢字語 題目에 달려 있는 正音 表記 때문에 시기 추정을 머뭇거리게 된다.

(4) 耕地 : 짜ᄀᆡ경ᄒᆞ기
收穀種 : 곡식종ᄌᆞ간슈ᄒᆞ기
大小麥 : 보리밀
水稻[2)]
旱稻 : 산되라
黍 : 기장　　穄 : 발글근조　　粱 : 조　　秫 : 춤기장ᄎᆞ조
大小豆菉豆 : 콩과ᄑᆞᆺ과록두
蜀黍 : 唐黍슈슈
蕎麥 : 木麥모밀
胡麻 : 춤깨
麻 : 삼

이 정음 표기가 조선 중기 이후에 記入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두문은 태종 때에 쓰여진 것이라 단정할 수 있지만 原本에서부터 있었다고 하면 이 자료는 당연히 정음 창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된다. 이 정음 표기는 中宗朝 이후에 삽입하여 넣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기서는 이두문이 太宗朝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결국, 이 글은 《農書輯要》의 吏讀文을 判讀하여 소개하고, 사용된 吏讀의 特徵을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이 책이 朝鮮 太宗朝에 작성된 것임을 밝히게 될 것이다.

2) 여기에는 정음 표기가 附記되지 않았다.

II

이제 《農書輯要》의 순서에 따라 판독한 결과를 드러내 보이고 설명을 필요로 하는 이두는 그때그때 기술하도록 하겠다. 각 단락을 다시 문장 단위로 끊어서 기술하는데 각 단락과 문장 앞에는 편의상 부호와 숫자를 붙인다. 이두문의 끝과 중간에 적어 넣은 숫자는 張次를 가리킨다.

農書輯要

A. 耕地 : 짜긔경ᄒᆞ기(3ㄱ)

A단락의 제목은 '耕地'인데 이를 '짜긔경ᄒᆞ기'로 번역하였다는 점이 먼저 눈에 띈다. 名詞化素 '-기'는 B단락의 '곡식종ᄌᆞ간슈ᄒᆞ기(收穀種)'에도 나오는데, 이 '-기'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중세국어 시기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책의 정음 표기는 17세기 이후의 시기에 적어 넣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A.가.1. 大抵 春耕乙良 起耕爲乎 追于 小推介木(3ㄱ)以 土塊 無只爲 摩平爲齊 秋耕乙良 起耕後 土色乾白爲去沙 同推介以 如前 使內(3ㄴ)

A.가.2. ○ 凡秋耕乙良 深厚起耕爲齊 春耕乙良 不深亦 使內乎矣 牛甫乙良 安徐 駈耕爲良沙 牛隻置 疲困 不多爲旀 耕地不飽爲齊(3ㄴ)

A.가.3. 推介乙良 地熟爲只爲 再度摩平爲良沙 地氣乾燥 不多 必于 旱氣是置 禾穀焦枯(3ㄴ) 不多(4ㄱ)

A.가.4. 陳田起耕乙良 須只 雜草茂盛時乙 用良 深厚起耕爲有如可 反耕次 不深亦 使內良沙 初亦 起耕爲有如乎 生土亦 反動 不多 田地軟熟(4ㄱ)

A.가.5. ○ 茅草茂盛陳地起畊 向事乙良 春節 妃叱[3] 牛馬放牧 踏破 根浮爲有去等 七月良中 起畊爲良沙 茅草復生 不多爲旀 翌年畊種 便易叱分 不喩 田地軟熟(4ㄱ)

이 단락에는 명사류 이두로 小推介木과 推介가 쓰이고 있다. 推介는 '밀개'임이 분명한데 15세기의 음운현상에 따르면 '밀애'로 표기되는 것이 원칙이다. '밀개'와 '밀애'는 古語辭典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推介는 매우 중요한 이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小推介木의 小와 木은 어떻게 읽어야 할지 분명하지 않다. 이들은 訓讀했는지 音讀했는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데, 木은 훈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쟈ᄀᆞᆫ밀개나모'로 읽어 둔다. (A.가.5)의 向事은 '안일'로 읽히는 이두로서 '하는 일'의 의미이다. 명사류접사로는 (A.가.5)의 '叱分 不喩'(ᄲᅮᆫ안디)의 叱分이 쓰였다. 이것은 고려 시대에는 항상 分으로 적히는 것이므로 이 자료가 조선조에 쓰여진 것임을 시사하는 자료가 된다.

조사류 이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A.가.5)의 始叱이다. 이것은 원래의 자료에는 妃叱

3) 妃叱은 (A.바 2)에서는 始叱로 나오므로 始叱의 誤記임이 분명하다.

로 적혀 있지만 문맥으로 보아 始叱을 잘못 베낀 것이 확실하다. 始叱은 현대국어의 '-부터'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지는데, 고려시대까지는 이 위치에 '비롯'으로 읽히는 元 혹은 元叱이 쓰였다(南豊鉉 1975). 즉 고려 시대까지는 元 혹은 元叱로 표기되던 것이 《大明律直解》에서부터 始叱로 바뀌어 표기되는 것이다.

(5) 凡徒役乙良 各各 徒年限乙 計數爲 竝只 配所到日 始叱 計數爲乎矣 (律一47ㄴ)

격조사로는 주격 亦(-이), 조격 以(-로), 대격 乙(-을), 처격 良中(-아히) 등이 쓰였고, 특수조사로는 乙良(-을랑)과 (A.가.2) 牛隻置의 置(-도)가 쓰였다.

동사류 이두로는 追, 無, 使內, 用 등이 쓰였다. 追于는 '조초'로 無只爲는 '업기암(<없기삼)'으로 使內는 '브리-'로 읽힌다. 그런데 使內는 代動詞의 성격이 강함을 이 자료는 잘 보여준다. (A.가.1)과 (A.가.2)의 使內와 使內乎矣는 摩平爲를 대신하고 있고 (A.가.4)의 使內는 起耕爲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A.가.2)의 早氣是置(早氣이어도)에 쓰인 是가 繫詞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A.가.4)의 用良은 '쓰아'로 읽혀 온 것인데, '이용하여, 사용하여, 써서'의 의미로 쓰일 때와 '-기 때문에, -으므로'의 의미로 쓰일 때의 두 가지 용법이 있다. 前者는 동사 원래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 後者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어미류의 용법에 가까운 것인데 여기에서는 前者의 용법으로 쓰였다.

부사류 이두로는 특이한 것이 여럿 보인다. (A.가.2)과 (A.가.4)의 不深亦은 '깊지 않게'에 해당하는 부사인데, 否定詞 不을 포함하여 부사를 만들었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따라서 不과 深亦을 나누어 각각 '안돌기피'로 새겨 읽을 수도 있고 '불심여' 정도로 音讀할 수도 있다.

(A.가.2)의 安徐는 일반적으로 [금지]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서는 '서서히'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임이 분명하다. 이 安徐를 徐徐의 誤記라 할 수도 있으나 (A.라.4)에 安徐亦이 나오므로 '서서히'를 뜻하는 부사 安徐 혹은 安徐亦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침 《養蠶經驗撮要》에 安徐亦이 쓰인 바 있으므로 安徐와 安徐亦은 《農書輯要》의 시기 추정에 도움이 된다.

(6) 當日良中 厚紙乙 三五度爲 安徐亦 執擧爲 (蠶 13)

李喆洙(1989 : 132)도 이를 '침착히, 서서히'를 뜻하는 부사로 다루었던바, 이두 사전에 이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여 기술하여야 할 것이다.

(A.가.4)의 初亦은 '초여'로 읽히는 이두인데 '처음에, 첫번에'의 의미를 가진다. (A.가.3)의 必于는 '비록'으로 읽히는 것으로 [양보]의 의미를 가지는 是置에 호응하여 쓰였다. (A.가.4)의 須只는 '모로기'로 읽히는데 '모름지기'에 해당하는 부사이다.

어미류 이두에서는 爲有의 선어말어미 有와, 어말어미인 只爲, 去沙와 良沙 등이 거론될 만

하다. 爲有如可, 爲有如乎, 爲有去等 등의 有는 원래 동사 어간이었던 有에서 문법화한 것으로서 [완료]의 의미를 가진다. 이들 有 다음에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으므로 爲有는 모두 'ᄒᆞ잇-'으로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 (A.가.1)의 無只爲와 (A.가.3)의 爲只爲에 쓰인 어미 只爲는 '-도록' '-게끔'의 의미를 가지는데, '-기암(<-기삼)'으로 읽힌다. (A.가.1)에 나오는 去沙(-거ᅀᅡ)와 여러번 나오는 良沙(-아ᅀᅡ)는 통사론적 조건에 의해 교체되는 異形態의 관계에 있다.[4] 즉 앞에 오는 동사가 非他動詞이면 去沙가 쓰이고 他動詞이면 良沙가 쓰이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高永根 1980 참조). (A.가.2)의 深厚起耕爲齊의 爲齊는 'ᄒᆞ제'로 읽히는 것이지만 사실은 [나열]의 용법으로 쓰인 것으로서 'ᄒᆞ고'에 해당한다. 이 齊는 '哉>制>齊'의 역사적 발달을 겪은 것이다(南豊鉉 1991).

A.나.1. 田地畊作之法段 時節早晩乙 看審 田畓(4ㄴ)良中 入糞貯水爲旀 除草及刈取等 事乙 及時 使內乎矣 春節解氷爲而叱 土氣通和爲齊 (5ㄱ)

A.나.2. 五月望後是去等 天氣始熱 土氣 加于 通和爲齊 八月是去等 晝夜平均 天氣和順爲臥 (5ㄱ)

A.나.3. 右時節乙 用良 畊作爲在如中 土地潤澤及時節早晩乙 不失 所出倍常(5ㄱ)

(A.나.1)의 段은 '-은/는'에 해당하는 특수조사로서 'ᄂᆞᆫ'으로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 段은 尙書都官貼에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叱段보다 이른 시기의 자료에 나타나는데(李丞宰 1992:101-2 참조) 이 자료에서는 叱段의 예는 보이지 않는다.

(A.나.1)의 除草及刈取의 及과 及時의 及은 서로 기능이 다른 듯하다. 앞의 及은 共同格助詞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나, 뒤의 及은 동사류에 속하는 듯한 느낌이 강한 것이다. 及時는 현대국어의 '제, 때'에 대응시킬 수 있는바 訓讀하여 '미츤 ᄢᅴ' 혹은 '미츤 ᄢᅴ' 정도로 읽는 것이 좋을 듯하다.

(A.나.1)에는 특이한 어미류인 而叱과 臥가 쓰여 주목된다. (A.나.1)의 爲而叱은 'ᄒᆞ면'에 해당하는 의미인바(安秉禧 1977:18) 而叱은 [조건]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而叱은 고려 시대에는 보이지 않다가 15세기에 들어서야 쓰이기 시작한다.

(7) ㄱ. 新丁 摘取好桑葉乙 … 細切 紙上均散爲遣 蠶種紙乙 履於其上爲而叱 蠶子亦 閒香自下爲臥乎 萬羽以 掃下 安徐爲乎矣 (蠶 38)

ㄴ. 遺漏奴婢分揀時 口數不等 分衿 有去等 右奴婢乙 用良 長子作財主 充給爲遣 有餘爲而叱 上項例執籌分執爲 後所生 幷以 子孫傳持 鎭長 使用爲乎矣 (金務 分財記)

《養蠶經驗撮要》는 太宗 15년(1415년)의 자료이고 金務 分財記는 世宗 11년(1429년)의 자료이므로, 而叱은 15세기 초에 쓰이기 시작한 이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農書輯要》에 而叱이

4) 異形態에는 주로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것과 형태론적으로 조건지어진 것만이 알려져 있으므로 통사론적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이형태라는 개념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쓰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자료의 작성 연대가 15세기 초엽일 것이라고 추정하게 된다. 爲而叱을 鄭求福(1991:29)은 '하마릿' 혹은 '한마릿'으로 읽었는데 'ᄒᆞ마릿' 'ᄒᆞᆫ마릿'이 더 정확한 것이다.

한편 (A.나.2)의 마지막에 쓰인 臥도 흥미로운 이두로서 14세기 이두 자료에 네 번 쓰인 바 있다. 고려 시대의 이두를 다루면서 李丞宰(1992:177)은 이러한 종류의 臥를 종결어미로 분류한 바 있는데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이 臥 다음에는 대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는데, (A.나.2)에서도 이것이 확인되다. 이 시간명사부터 새로운 문장이 시작된다고 하면 臥를 종결어미라고 하여야 하지만, 臥가 뒤에 오는 시간명사를 수식한다고 하면 이것은 臥乎(-누온)와 기능이 같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臥를 動名詞 語尾로 분류할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밝혀 둔다. (A.나.3)의 爲在如中은 'ᄒᆞ견다히'로 읽히는데, 현대국어의 '할 것 같으면'에 해당하는바 在如中은 [조건]의 의미를 가진다.

A.다.1. 春初氣和爲去等 堅地乙 起畊爲乎矣 黑色堅地乙良 起畊後 推介以 土塊 無只爲 平摩(6ㄱ)

A.다.2. 草生爲去等 反畊爲有如可 小兩後 更良 反畊 推介以 平摩 待時耕種爲齊 (6ㄱ)

A.다.3. 不堅地及虛浮地乙良 杏花始開時 起畊(7ㄱ)爲有如可 同花落時 反畊(7ㄴ)

A.다.4. 推介以 平摩後 草生有雨爲去等 又反畊 推介以 平摩 付種爲乎矣 其中 加于 虛浮地乙良 牛馬乙 放踏爲良沙 立苗成長(7ㄴ)

이 단락에서는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 없다. 更良 (가시아)과 加于는 파생부사로서 각각 '다시' '더욱'의 의미를 가진다.

A.라.1. 農事段 所畊田地數爻乙 酌量 人奚 牛隻乙 預備(7ㄴ)

A.라.2. 牛隻亦 田地乙 壓見爲旀 人奚置 (7ㄴ) 穀苗乙 壓見爲置 勞困 不多爲只爲 使內良沙 畊種置 失時 不多爲旀 除草置 易亦 使內 (8ㄱ)

A.라.3. ○ 凡矣 田地乙 兩麥田外 秋節刈取後 幷只 反耕爲乎矣 (8ㄱ)

A.라.4. 反畊前 須只 手愁郎乙 用良 田地 長追是 及 廣追是以 文羅棄置爲遣 牛甫以 安徐亦 起畊爲乎 追于 土塊 無只爲 推介以 平摩爲有如可 土色乾白(8ㄱ)爲而叱 又手愁郎以 再度 文羅棄置爲遣 (8ㄴ)

A.라.5. 開春 地氣通和爲去等 日高時乙 用良 手愁郎以 四五度爲 文羅棄置爲有如可 必于 無雨爲良置 及時 落種 (8ㄴ)

A.라.6. ○ 凡矣 田地乙 須只 秋耕爲臥乎 事段 荒草不生 除草便易爲去有而亦 牛隻佳叱 不足爲去等 粟田叱分 秋畊爲遣 其餘乙良 春畊不妨 (8ㄴ)

A.라.7. ○ 秋耕乙良 須只 天氣未寒時良中 及時 起畊爲乎矣 不得已 寒冷是去等 須只 日高爲去沙 起畊爲齊 春耕乙良 天氣和暖爲去沙 使內 (9ㄱ)

앞에서 推介가 명사류 이두임을 보았는데 (A.라.4)에는 手愁郎과 長追是, 廣追是, 文羅棄置 등의 명사류가 나온다. 手愁郎은 현대국어의 '쇠스랑'을 표기한 것이지만 나머지 명

사들은 무엇에 대응하는 것인지 제법 까다롭다.

문맥으로 보면 長追是와 廣追是는 현대국어의 '가로'와 '세로'에 대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K.가.4)에 나오는 長追赤 廣追赤과 각각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追是와 追赤은 17세기 자료인 《家禮諺解》의 '조치'로 읽을 수 있다.[5]

(8) ㄱ. 세 폅을 호딕 다 右로 向케 ᄒᆞ야 조치로 호고 (六 3)
ㄴ. 뵈 ᄒᆞᆫ 오리 조치로 길의 ᄒᆞᆫ 자 여ᄉᆞᆺ치오 ᄆᆞᄅᆞ 너븨 여듧치를 ᄯᅩ 조치로 뎌버 가온대 分히야 (六 7)
ㄷ. 衣身二尺二寸을 인緣ᄒᆞᆫ 고로 左右 두 소매도 ᄯᅩᄒᆞᆫ 二尺二寸이라 ᄒᆞ니 조치로 ᄆᆞᄅᆞᆫ 거스로 ᄒᆞ야곰 다 正方ᄒᆞ다 호미라 (六 9)

위의 '조치'는 '縱'을 번역한 것인데, '길쭉한 쪽, 길쭉한 방향' 혹은 '길쭉한 쪽의 길이'라는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나 확실하지는 않다. 여기서는 長追是와 長追赤은 '기릐 조치', 廣追是와 廣追赤은 '너븨 조치'로 읽어 둔다.

文羅棄置의 文羅棄에 대해 金容燮(1988:16)은 "손보기 교수와 장세경 교수에 의하면 남부 지방에서는 지금도 쇠스랑에 의한 이 작업을 '글라버리기'라 칭한다고 한다"라고 하였으나 필자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文羅棄置의 置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이 置는 아마도 '도리깨질, 풀무질' 등의 '-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置를 조사류의 '-도'로 읽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문맥을 살펴보면 [부가]의 '-도'가 쓰일 곳이 아님이 드러난다.

(A.라.6)에는 특수조사로서 매우 특이한 예인 佳叱이 나온다. 이 佳叱의 용례는 《大明律直解》의 다음 예만이 알려져 있으므로, 이는 《農書輯要》의 작성 시기가 《大明律直解》의 편찬 시기에서 멀지 않은 것임을 암시한다.

(9) 此外未畢爲在乙 是爲稽程是如爲臥乎 事是去有乙 一人亦 自以 省察現告爲良在等 竝只 免罪爲遣 唯只 掌務令史佳叱 免罪 不得爲乎 事 (律一 36ㄱ)

장지영·장세경(1976)은 佳叱을 '갓'으로 읽고 '-뿐, -만'의 뜻이라 하였는데, '갓'은 중세국어에서 확인되지 않는 접사이다. [한정]의 의미를 가지는 '-뿐, -만'과 비슷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의미까지도 가지고, 나아가 'ㅅ'으로 끝나는 접사로는 '-곳' '-봇' '-못' 등이 있다. 그 중에서 佳叱에 가장 가까운 것은 '-곳'이므로 佳叱은 15세기의 '-곳'에 해당하는 명사류접사라 할 수 있다.

부사류 이두로는 易亦, 凡矣, 幷只, 安徐亦 등이 주목된다. (A.라.2)의 易亦은 '이너여'로 읽히는데 《大明律直解》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부사이다.

5) 劉昌惇의 《李朝語辭典》에는 '조치'에 대한 풀이가 나와 있지 않고 南廣祐의 《古語辭典》에는 '세로, 종(縱)'으로 풀이되어 있다.

(10) 遠方出外 身故爲去等 子孫等亦 易亦 本處良中 歸葬 不得 燒火爲在乙良 聽從其便齊 (律十二 8ㄴ)

(A.라.3)의 凡矣는 15세기의 '믈읫'에 대응한다. (A.라.3)의 幷只는 '다모기, 다무기' 등으로 읽히는 부사로서 '모두, 함께'의 의미를 가진다. (A.라.4)의 安徐亦은 앞에서 논의한 安徐가 부사류임을 증명해주는 예가 되는데 역시 '서서히'의 의미로 쓰였다.

어미류로는 선어말어미 去의 용법과 앞에서 논의한 而叱 그리고 去有而亦이 눈에 띈다. 위에 나오는 선어말어미 去(-거-)는 항상 非他動詞에 통합되었음이 다시 확인된다. (A.라.3)의 爲而叱은 'ᄒᆞ면'에 대응하므로 而叱이 [조건]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역시 확인된다. (A.라.6)의 爲去有而亦은 尙書都官貼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것으로서 'ᄒᆞ거이신마리여' 정도로 읽을 수 있다. 이것은 양보 혹은 역접 즉 '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바, 이 곳의 而亦은 15세기의 '-마ᄅᆞᆫ'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安秉禧 1977:18). 이 而亦은 존재동사였던 在와 존재동사 有에서 비롯된 선어말어미 有 다음에만 통합된다(李丞宰 1992:189)는 특징을 가진다.

A.마.1. 凡矣 田地乙 品好爲只爲 使內 向事段 第一菉豆 之次 小豆胡麻等乙 用良 竝只 五六月時 田地良中 散種 (9ㄴ)

A.마.2. 茂盛爲而叱 反耕爲有如可 開春爲去等 雜穀畊種爲在如中 所出倍倍 糞尿熟糞以 無異 (9ㄴ)

(A.마.1)의 之次는 이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문의 용법으로는 次之이기 때문이다. (A.마.2)의 문장에는 [조건] 혹은 [가정]의 의미를 가지는 爲而叱, 爲去等, 爲在如中이 모두 쓰이고 있어 흥미롭다. 이들 상호간의 의미차가 어떻게 기술되어야 할 것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A.마.2)의 '糞尿熟糞以 無異'는 비교구문인데, 다음의 原文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美田之法이) 糞尿熟糞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다.

(11) 其美與糞矢熟糞同

따라서 이 곳의 조사 以는 비교구문에 쓰인 특이한 것이 된다.

A.바.1. 田地瘠薄 庫乙良 須只 入糞爲乎矣 糞收貯法段 秋收打作後 場上不用塵埃 及山野雜草乙 春夏節 始叱 數多刈取 一處積上爲有如可 每日 牛馬厩良中 三寸厚(10ㄱ) 式以 入置 (10ㄴ)

A.바.2. 每日朝間 牛馬糞乙 取出積上爲乎矣 式爲 使內如可 十二月 始叱 五月至 向前 牛馬糞乙 田地良中 入置 (10ㄴ)

(A.바.1)의 庫는 현대국어의 '곳(處)'을 뜻하는데 '處'는 15세기 정음 표기로는 '곧'이었다. (A.바.2)의 向前(아젼)은 '앞의, 앞에서의'의 의미를 가지면서 뒤에 오는 명사류를 수

식한다. (A. 바. 1)의 三寸厚式以은 '세치두께식으로, 두께 세치식으로'에 해당하므로 이 厚는 중세국어의 '두틔, 둗긔'로 읽을 수 있고 式은 이에 후속하는 명사류접사라 할 수 있다. 이 式은 尙書都官貼에 이미 쓰인 바 있다(李丞宰 1992:59). 이에 비해 (A. 바. 2)의 式爲는 '(앞의) 法式으로, 法式대로'에 해당하는 이두이므로 式과 式은 구별되어야 한다. 式爲의 용례가 高麗末 國寶戶籍文書에도 나오는데 이 사실도 《農書輯要》의 시기 추정에 중요한 예가 될 것이다.

(12) 今后 京外行下舊制乙 用良 今年 元叱 三年 壹遞以 大小兩班鄕吏等矣 戶口成籍乙 式爲使內乎矣 (高麗末國寶戶籍文書 둘째폭 8~9)

(12)에서 式爲가 사용된 환경은 (A. 바. 2)에서의 환경과 완전히 같다는 점이 주목된다.

(A. 바. 1-2)의 始叱이 '비롯'으로 읽히는 (12)의 元叱과 같은 것이라는 점은 앞에서 논의한 바 있다. 그런데 (A. 바. 2)의 始叱에 正月至의 至가 호응하여 쓰이고 있는데, 이는 15세기의 '니르리'에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고려 시대의 口訣 자료에서는 이 곳의 至가 거의 예외 없이 至令로 나오는바 至를 새겨 읽는 것이다.

B. 收穀種 : 곡식종ᄌᆞ간슈ᄒᆞ기 (10ㄴ)

B단락의 제목은 收穀種인데 이를 '곡식종ᄌᆞ간슈ᄒᆞ기'로 풀어 읽었다. 이 때의 '-기'도 이 정음 표기가 근대국어 이후에 붙은 것임을 암시한다.

B. 가. 1. 雜穀種子乙 須只 濕氣 無只爲 乾正 相雜 不多 爲只爲 揀擇刈取 高處懸置爲有如可 落種臨時二十日前 沈水浮去雜物爲遣 晒乾種之爲齊 (11ㄱ)

B. 가. 2. 麥種乙良 堅實大穗乙 (11ㄱ) 須只 揀擇刈取 高處立置 至極乾正爲乎矣 白蟲生出爲去等 遣遣 除去爲齊 (11ㄴ)

B. 가. 3. 冬節雪下爲去等 遣遣 收取 或甕或仇耳 入盛 亏音內 藏置爲有如可 雜穀落種時 右雪水良中 沈浸落種爲在如中 蟲損 不多爲旀 所出數多 (11ㄴ)

(B. 가. 3)에는 명사류 이두로서 仇耳와 亏音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仇耳는 중세국어의 '구ᄉᆡ(槽)'에 대응하는데 耳가 日母字이므로 그 대응은 매우 정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亏音은 15세기의 '움ㅎ(窖)'을 표기한 것이다. (B. 가. 2-3)의 遣遣는 'ᄀᆞᆫᄀᆞᆫ'으로 읽히는데 (李丞宰 1992:152) '낱낱이, 일일이'를 뜻하는 부사이다.

B. 나. 1. 冬至日 雜穀種子乙 各一升式以 各盛布帒 亏音中 埋置爲有如可 同日以 五十日第取出改量爲乎矣 (12ㄱ)

B. 나. 2. 其中 剩出最多爲在 種子亦 其年豐盛穀食是去有亦 地氣 各別爲去有等以 各里每如 埋置爲良沙 有驗 (12ㄱ)

여기에도 亏音이 쓰였는데 中까지를 이두로 보아 '움히'로 읽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이 자료에서는 처격조사로 良中이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 (B. 나. 1)의 一升式以는 '혼되식으로' 정도로 읽을 수 있다.

(B. 나. 1)의 五十日第의 第는 15세기의 '-자히' 현대국어의 '-째'에 대응하는 것인바, '同日以 五十日第'는 '同日로부터 五十日째'로 번역된다. 따라서 이 곳의 以는 15세기의 '-로셔'에 대응한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B. 나. 2)의 每如는 '-마다'로 읽히는데, 고려 시대의 이두 자료와 《大明律直解》에는 보이지 않고[6] 《養蠶經驗撮要》에 처음 나온다.

(13) ㄱ. 蠶食給後每如 字細 看審 (蠶 45)
ㄴ. 移蠶時每如 箔上良中 稀疎布列 (蠶 50)
ㄷ. 正食時乙良 給食後每如 桑葉入盛 (蠶 63)

따라서 이 每如는 《農書輯要》의 작성시기를 추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B. 나. 2)의 去有亦도 주목할 만한 어미이다. 《大明律直解》에 처음 쓰이기 시작하는 이두로서 주로 양보나 역접의 연결어미로 쓰이고 있다.

(14) ㄱ. 軍吏段 牌內入屬受料軍人亦 識字以 軍吏良中 選充爲在 (律一 13ㄱ) 人是去有亦 右人等 犯罪爲去等 罪同軍人齊 (律一 13ㄴ)
ㄴ. 同犯罪人亦 老疾爲去有亦 大抵 杖六十徒一年罪乙 贖罪爲乎第亦中 總計錢削十二貫是去有乙 已受杖六十 贖錢三貫六百文 除遣 (律一 24ㄱ)

따라서 去有亦의 有亦은 앞에서 논의한 바 있는 去有而亦의 有而亦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去有亦이 去有而亦에서 而가 삭제 혹은 생략된 것임을 암시한다. (B. 나. 2) 를 번역하면 '그 중 수확이 가장 많은 種子가 그 해의 곡식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지만 地氣가 서로 다른 것이므로 名里마다 (나누어) 묻어 두어야 효험이 있다' 정도가 될 것이다. (B. 나. 2)의 去有等以의 等以는 15세기의 '드로'에 대응하는데,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에 주로 쓰인다.

C. 大小麥 : 보리밀 (12ㄴ)

C단락의 제목 大小麥은 大麥과 小麥을 줄여서 표현한 것인데 이는 정음 표기 '보리밀'에서 잘 드러난다.

C. 가. 1. 兩麥田乙良 須只 五月良中 反耕爲有如可 (12ㄴ)

6) 이두 자료와는 달리 鄕歌와 舊譯仁王經 口訣에는 '-마다'가 일찍부터 나타난다.
ㄱ. 刹刹每如 邀里白乎隱(禮敬諸佛歌)
ㄴ. 一一國土 ᄀᆞᆺᄒᆞᆫ 佛ᄉᆞ 及ᅀᅡ 大衆ᄉᆞᄋᆡ 矛ㅁㅣᄉᆞᄋᆞᆯ白ᄒᆞᄉᆞᄆᆞᆷ 今乙 如這 異ᄉᆞᄒᆞ 無七ᄂᆡᄀᆞ (舊仁 二, 5-6).
一一國土七 中ᄀᆞᆺᄒᆞᆫ七 一一佛ᄉᆞ 及ᅀᅡ 大衆ᄉᆞᄋᆡ 冬ᄒᆞᆫᄃᆞᆯᄋᆡ (舊仁 二, 6-7).

C. 가. 2. 瘠薄田乙良 白露節良中 更良 反畊 依法落種爲齊 中品田是去等 秋分時 如前落種爲齊 上品田乙良 秋分後十日 如前落種 (13ㄱ)

C. 가. 3. ○ 節氣早晩亦 每年不同爲乎等 用良 右例以 一定 使內乎 所 未便爲去有等以 節氣乙 看審隨宜 使內乎矣 (13ㄱ)

C. 가. 4. 兩麥段 加于 新舊間最要穀食是乎等 用良 須只 數多入糞 (13ㄱ)

(C. 가. 2)의 爲齊는 문장을 종결시킬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기서는 나열의 연결어미 '-고'가 통합된 '호고'에 해당하는 것이다. (C. 가. 3)의 所는 형식명사 '바'로 읽는다.

C. 나. 1. 兩麥乙 及時 刈取打作 六月天氣甚熱日(13ㄴ)中時 或場或庭乙 掃淨爲遣 (14ㄱ)

C. 나. 2. 向前 兩麥乙 薄布後 刀叱古亇伊乙 斫刀以 細折 前件兩麥良中 相雜乾正 熱氣未散時 收入藏置爲齊 (14ㄱ)

C. 나. 3. 必于 陳麥是良置 此 樣以 使內乎矣 立秋後則蟲生 (14ㄱ)

(C. 나. 2)에서는 刀叱古亇伊와 斫刀가 눈에 띄는데 이들은 각각 15세기의 '돗고마리(蒼耳)'와 중세국어의 '작도'를 표기한 것이다. 刀叱古亇伊는 13세기 자료인 《鄕藥救急方》의 升古亇伊와 刀古休伊(南豊鉉 1981:123-4 참조)보다 정밀한 표기라 할 수 있다. (C. 나. 3)의 '此 樣以'는 '이 양으로'에 대응하는 이두로 읽힌다. 이 때의 樣以가 金務 分財記에서 養以로 적힌 바 있다.

D. 水　稻

D단락의 제목 水稻에는 정음 표기가 붙지 않았는데 이것은 음독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D. 가. 1. 色吐連處田地亦 或田或畓 互相耕作(14ㄴ)爲良 量地品 一樣 田地乙良 每年回換水稻畊作爲乎矣 三月內畊種 不得爲去等 四月上中旬乙 不違畊種 (15ㄱ)

D. 가. 2. ○ 起畊後 入水十日第 所訖羅以 地熟爲限 摩正爲遣 (15ㄱ)

D. 가. 3. 種子乙良 洗淨去雜物爲置 在前農人矣 使內如乎 貌如 浸種落種爲乎矣 天旱水種 不得爲去等 浸種 除良 落種爲齊 (15ㄱ)

D. 가. 4. 落種後 三(15ㄱ)日內 須只 驅鳥 (15ㄴ)

D. 가. 5. ○ 稻苗兩葉是去等 始作除草爲乎矣 除草後每如 去水 稻根曝乾 二日後 還入水爲齊 將熟時乙良 去水 霜降後刈取 (15ㄴ)

D. 가. 6. 大抵 畓水亦 不濁爲良沙 稻亦 豐盛結實 (15ㄴ)

(D. 가. 2)의 所訖羅는 현대국어의 '써레'에 해당하는 농기구로서 중세국어 자료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단어이다. (D. 가. 3)의 貌如는 《儒胥必知》에서 '갸로혀'와 '즛다'로 읽고 있으나 '즛몯'으로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李丞宰 1992:77). (D. 가. 3)의 除良은 '제외하고'의 의미로 쓰였다.

D. 나. 1. 陂澤 無在 山谷段 地窄歲易 不得 作畓限當[7] 庫以 每年畊作爲臥乎 事是良尒(16ㄱ)

D. 나. 2. 二月解氷 地乾爲去等 火燒 起畊後 入水十日第 土塊解散爲去等 所訖羅以 平正 令是遣 (16ㄱ)

D. 나. 3. 落種 苗長七八寸是去等 右例以 起畊(16ㄱ)平正爲乎 他畓 庫良中 硃密得中爲只爲 移苗栽種爲乎矣 (16ㄴ)

D. 나. 4. 須只 移苗栽種爲臥乎 事段 畓 庫乙 每年回換 畊作 不得 爲在如中 雜草茂盛爲臥乎等 用良 移栽爲良沙 易亦 除草 (16ㄴ)

D. 나. 5. ○ 此亦中 堤堰防築有處[8] 田地段 入水去水乙 心音 追于 使內 不得 爲臥乎等 用良 天時雨澤乙 看審 使內 (16ㄴ)

(D. 나. 1)의 事是良尒은 '일이아금'으로 읽히는데, 이 때의 良尒은 [원인] [이유] 등을 뜻하는 연결어미이다. (D. 나. 5)의 此亦中은 현대국어의 '이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려 시대의 자료에도 쓰인 바 있다(李丞宰 1982:84). (D. 나. 5)의 心音은 15세기의 'ᄆᆞᅀᆞᆷ'을 표기한 것으로서 鄕歌에 나오는 心音과 같은 것이다.[9]

(D. 나. 2)의 令是遣은 '시기고'로 읽히는데, [명령]의 의미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런데 (D. 나. 1)의 無在는 '업견<(없견)'으로 읽히지만 흔하지 않은 이두이다. 이 無在는 고려 시대의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다가 《大明律直解》에 와서야 비로소 쓰이기 시작하므로, 無在는 《農書輯要》의 작성시기를 추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在가 주로 有情名詞를 수식할 때 사용된다는(이강로 1984) 점을 강조할 수도 있으나, 無情名詞를 수식할 때에도 사용된 예가 있으므로(李丞宰 1992:180)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E. 旱稻 : 산되라(17ㄱ)

E단락의 제목 旱稻는 중국식 명칭이고 山稻(산도)는 우리의 명칭이다. 山稻는 《衿陽雜錄》의 '牛得山稻 우득산도 亦名 두어라'에도 나오는데, 《朝鮮館譯語》의 '粳米 傘朶色二'와 《譯語類解》(下9)의 '旱稻米 산도미' 그리고 《五洲衍文長箋散稿》(卷25)의 農家奇文異字辨證說의 '旱稻 方言山稻也' 등도 참고가 된다(李基文 1975:101).

E. 가. 作田作畓良中 並只 合當 不得 爲在 卑濕之地乙 用良 山稻耕種 (17ㄱ)

爲在는 卑濕之地를 수식하는 용법으로 쓰였는데 여기서 在가 無情名詞도 수식할 수 있음

7) 이 作畓限當은 作畓合當의 誤記일 것으로 추정된다. (E. 가)의 '作田作畓良中 竝只 合當 不得爲在'가 참고가 된다.

8) 有處는 無處의 잘못일 것이다. 有를 無로 바꾸어 놓아야만 문맥이 통하기 때문이다.

9) ㄱ. 直等隱 心音矣 命叱 使以惡只 (兜率歌 3)
ㄴ. 嫉妬叱 心音 至刀 來去 (隨喜功德歌 10)
ㄷ. 落句 吾里 心音 水 淸等 (請佛住世歌 9)
ㄹ. 阿耶 普賢叱 心音阿 于波 (總結無盡歌 9)

이 다시 드러난다. 여기서의 用良은 '이용하여, 사용하여'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F. 黍稷粱秫 : 黍기장 稷밭글근조 粱조 秫춤기장ᄎᆞ조 (17ㄱ)

'黍'를 '기장'으로 읽은 것은 《衿陽雜錄》에도 나오지만 나머지는 얼른 확인되지 않는다. 《訓蒙字會》에서는 黍를 '기장 셔 不粘者爲黍 粘者爲秫 又ᄉᆞᆷᄉᆞᆷ曰蜀黍', 稷를 '기장 졔 俗呼米曰黃米', 粱을 '싱동ᄎᆞᆯ 량 靑粱粟', 그리고 秫을 'ᄎᆞᆯ기장 ᄎᆞᆯ'이라 하였다. 여기서 찰지지 않은 기장은 黍이고 찰진 기장은 秫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음 표기의 '춤기장'은 'ᄎᆞᆯ기장'의 잘못임을 알 수 있다. 한편 《農書輯要》에서는 秫에 대해 '춤기장'과 'ᄎᆞ조'의 두 가지 명칭을 붙였는데 이는 黍類와 粟類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訓蒙字會》에서는 粱만이 粟類에 속하고 나머지 셋은 黍類에 속하는데, 《農書輯要》의 정음 표기에서는 稷를 粟類로 분류하고 秫은 黍類와 粟類에 두루 집어 넣은 것이다. 《訓蒙字會》가 禾邊에 속하는 漢字를 黍類로 米邊에 속하는 漢字를 粟類로 분류한 것이라면 《農書輯要》에서의 정음 표기는 당시에 現用되던 분류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農書輯要》의 '稷밭글근조'의 '글근'은 《訓蒙字會》의 註釋을 참고하면 '굴근'의 誤記인 것으로 추정된다.

F.가. 黍稷田段 地品肥厚爲在 陳荒之乙[10] 起畊落種爲乎矣 大小豆根爲次 (17ㄴ)

여기서의 爲在도 無情名詞를 수식한다.

F.나.1. 諫樹段 樹木枝條良中 霜露亦 封結如氷是去有等以 十月初三日良中 諫樹爲去等 付種次 同日以 使內齊 十一月十二日 (17ㄴ) 諫樹日乙良置 右例以 使內乎矣 (18ㄱ)

F.나.2. 十月以 正月至 諫樹爲在如中 早晩黍亦 竝宜 (18ㄱ)

(F.나.1)의 是去有等以는 '이거이신ᄃᆞ로'로 읽히는데 '-일 것이(확실하)므로'의 의미를 가진다. (F.나.2)의 '十月以 正月至'는 15세기의 '十月로셔 正月 니르리'에 해당한다.

G. 大小豆菉豆 : 콩과 ᄑᆞᆺ과 록두 (18ㄱ)

大小豆는 大豆와 小豆를 줄여서 표기한 것이고 菉豆는 《衿陽雜錄》에서 '녹두'로 표기된 바 있다.

G.가.1. 大小田乙良 春種是去等 前年穀根乙 過熟 (18ㄱ) 不多 爲只爲 起畊付種爲齊 晩種是去等 兩麥根乙 用良 如前 使內齊 (18ㄴ)

G.가.2. 菉豆乙良 薄田良中 如前耕種爲乎矣 除草乙良 二度分 使內 (18ㄴ)

(G.가.1)의 爲齊는 [나열]의 용법으로 쓰인 것인바 'ᄒᆞ고'에 해당한다.

H. 蔓黍 : 唐黍 슈슈 (18ㄴ)

10) 荒之는 荒地의 잘못일 것이다.

《訓蒙字會》의 黍의 註釋에 '슈슈曰蜀黍'가 나오고 《衿陽雜錄》에 '無應厓唐黍 뭉애슈슈'가 나온다. '슈슈'는 滿洲語 šušu(高粱)의 借用語일 것이다(李基文 1975:106).

H. 가. 唐黍乙良 田地卑濕 庫良中 二月初生時 付種 (19ㄱ)

여기에는 거론할 만한 것이 없다.

I. 蕎麥 : 木麥모밀 (19ㄱ)

《訓蒙字會》에 '蕎 모밀 교 俗蕎麥'이라 나와 있다. 따라서 《農書輯要》에서의 木麥은 '모밀'의 借字表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 가. 木麥田乙良 五月良中 反畊 過二十五日後 (19ㄱ) 雜草朽爛爲去等 更良 反畊爲有如可 付種臨時 又反耕落種爲乎矣 六月內立秋爲去等 立秋一二日 付種 (19ㄴ)

更良은 15세기의 '가시아'로 읽히고 爲有如可는 'ᄒᆞ잇다가'로 읽힌다.

J. 胡麻 : 춤깨 (19ㄴ)

'춤깨'는 '춤께'로도 표기된다.

J. 가. 1. 胡麻田乙良 土色白 庫乙 看審 須只 雨後(19ㄴ)乙 用良 起畊和糞足種爲遣 除草乙良 不過三度爲齊 (20ㄱ)
J. 가. 2. 水荏子乙良 路邊田畔良中 畊種 (20ㄱ)

여기에도 거론할 만한 것이 없다.

K. 麻 : 삼 (20ㄱ)

《訓蒙字會》에 '麻 삼 마 俗呼火麻線麻又麻骨겨를'이라 하였다.

K. 가. 1. 麻子段 白者是沙 種子合當 必于 色白爲良置 (20ㄱ) 齒以 開破看審爲乎矣 膏潤氣無去等 不用爲齊 (20ㄴ)
K. 가. 2. 市裏交易麻子乙良 暫時 口含看審爲乎矣 其色不變爲在以 交易落種 (20ㄴ)
K. 가. 3. ○ 故家代段 瓦石數多爲乎等 用良 深畊爲齊 膏腴過甚爲乎等 用良 麻亦 生長傷折爲臥乎等以 (20ㄴ)
K. 가. 4. 須只 上品田乙 每年回換 田 長追赤以 三畊 廣追赤以 四畊 爲等如 (20ㄴ) 七度爲反畊付種 (21ㄱ)

(K. 가. 4)에는 長追赤과 廣追赤이 쓰였는데 이는 앞에서의 長追是 廣追是와 각각 같은 것이다. 이들을 앞에서 '기릐 조치'와 '너븨 조치'로 읽은 바 있는데, '치'의 표기에 '赤'字를 이용하는 것은 고려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으로서 몽고어 차자표기 자료에 자주 나타난다. 李基文(1991:154-6)은 《高麗史》에 나오는 몽고어 차용어 必闍赤과 必者赤을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赤'字가 '치'라는 음을 가지게 된 것은 "元代의 몽고어 표기에 있어서의 漢字의 용법이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결과"(李基文 1991:163)라 하였다. 長迫赤과 廣迫赤의 '赤'字는 '赤'이 '치'로 읽히는 용례를 하나 더 추가해 준 것일 뿐만 아니라 固有語의 표기에도 '赤'字가 쓰인 적이 있음을 증명해 주므로 매우 귀중한 예라 할 수 있다.

(K.가.2)의 爲在以는 'ᄒᆞ견으로'로 읽히면서 '하는 것으로'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 때의 在는 동명사어미로 쓰인 것이다. (K.가.3)의 '過甚爲乎等 用良'은 원칙적으로는 '過甚하므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나 여기의 문맥은 '過甚하거든'에 해당하는 이두 즉 [조건]의 의미를 가지는 이두가 쓰여야 할 곳이다. 따라서 '爲乎等 用良'은 잘못 쓰인 이두가 아닌가 한다.

(K.가.4)의 爲等如는 'ᄒᆞ트러'로 읽히는 부사로서 '모두, 통틀어'의 의미를 가진다. 현대국어의 '통틀어'의 '-틀어'도 사실은 爲等如의 等如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는바 '통틀어'는 '通+等如'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정해 본다.

III

지금까지 《農書輯要》의 이두를 판독하여 제시하고 중요한 이두에 대해서는 설명을 붙여 보았다. 《農書輯要》에 나오는 이두로서 주목할 만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名詞類 이두로서 小推介木(쟈ᄀᆞᆫ밀개나모), 推介(밀개), 手愁郎(현대어의 쇠스랑), 文羅棄置(??), 所訖羅(현대어의 써레), 丐音(움ㅎ), 仇耳(구ᄉᆡ), 庫(곳), 厚(두틔, 둗긔), 升(되), 刀叱古介伊(돗고마리), 此(이), 樣(양), 長迫是와 長迫赤(기릐 조치), 廣迫是와 廣迫赤(너븨 조치) 등이 흥미로운 것이었다. 이 중에는 중세국어의 언해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 제법 많은데 특히 농기구 명칭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이다. 迫是와 迫赤은 '조치'를 표기한 것으로서, 이들은 '조치'가 '좇(어간)+이(파생접사)'에서 온 것임을 증명해 준다. 특히 迫赤은 몽고어 차용어 표기에 쓰이던 赤이 固有語의 표기에도 사용된 예가 되는바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명사류접사로는 式과 第가 쓰였다.

助詞類 이두로는 始叱(-비롯), 每如(-마다), 佳叱(-곳) 등이 중요하다. 始叱은 《大明律直解》(1395년)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하고 每如는 《養蠶經驗撮要》(1415년)에서부터 나오는바 이들은 《農書輯要》가 이 두 자료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것임을 시사한다. 佳叱은 지금까지 《大明律直解》의 한 예만이 알려져 있었는데 《農書輯要》의 예를 새로이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갓'으로 읽기도 하였으나 이것은 확인되지 않는 형태이므로 15세기의 [지정]의 특수조사 '-곳'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추정해 보았다.

副詞類 이두로는 不深亦(불심여, 안돌 기피), 安徐(안서)와 安徐亦(안서여), 易亦(이너여), 遣遣(ᄀᆞᆫᄀᆞᆫ), 爲等如(ᄒᆞ톨어) 등등이 쓰였다. 不深亦은 '깊지 않게'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否定素를 포함하는 부사라는 점이 특이하다. 이것은 '-亦'을 통합하여 부사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생산적이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安徐와 安徐亦은 '서서히'를 뜻하는 것으로서 [금지]를 뜻하는 安徐와는 구별되는데, 《養蠶經驗撮要》에도 그 용례가 나온다.

語尾類 이두로는 (爲)而叱 (마릿), (爲)臥(누), (爲)去有而亦(거이신마리여), (是)去有亦(거이신여), (爲)在以(견으로) 등이 주목된다. 특히 爲而叱은 'ᄒᆞ면' 즉 [조건]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大明律直解》까지의 자료에서는 나오지 않고 《養蠶經驗撮要》와 金務 分財記(1429년)에 나온다. 따라서 이것은 《農書輯要》의 작성 시기 추정에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臥로 문장이 끝나는 듯한 이두문은 14세기 자료에 다수 나오는데, 《農書輯要》와 《養蠶經驗撮要》에 한 번씩 나오고 있다. 去有而亦과 去有亦은 그 용례가 많지 않은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은 모두 양보나 역접의 의미를 가지므로 去有亦은 去有而亦의 而가 삭제 혹은 생략된 것이라 할 수 있다. 去有而亦은 尙書都官貼에 去有亦은 《大明律直解》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바 시기의 차이가 눈에 띄기 때문이다. 在以의 在는 동명사어미로 쓰인 것으로 그 용례는 많은 편이다.

위에서 정리된 여러 이두를 종합해 보면 《農書輯要》의 이두문은 15세기 초반기에 작성된 것임이 확실해진다. 《大明律直解》, 《養蠶經驗撮要》, 金務 分財記 등에서 독특하게 쓰이고 있는 이두가 《農書輯要》에 두루두루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農書輯要》는 朝鮮 太宗朝에 편찬한 農書로서 蠶書인 《養蠶經驗撮要》와 짝을 이룬다고 감히 추정해 본다.

참 고 문 헌

高永根(1980), "中世語의 語尾活用에 나타나는 '거/어'의 交替에 대하여", 國語學 9.
金容燮(1988), 朝鮮後期農業史研究, 一潮閣.
南豊鉉(1975), "漢字借用表記法의 '元'字考", 國語學 3.
_____(1981), 借字表記法研究, 檀國大出版部.
_____(1991), "新羅時代 吏讀의 '哉'에 대하여",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 民音社.
安秉禧(1977), "《養蠶經驗撮要》와 《牛疫方》의 吏讀의 研究", 東洋學 7.
이강로(1984), "인칭 매김법 '-在(견)'에 대한 연구", 한글 184.
李基文(1975), "《衿陽雜錄》의 穀名에 대하여", 東洋學 5.
_____(1991), 國語 語彙史 研究, 東亞出版社.
李丞宰(1992), 高麗時代의 吏讀, 國語學叢書 17, 太學社.
李喆洙(1989), 《養蠶經驗撮要》의 吏讀研究, 仁荷大出版部.
鄭求福(1991), "金務의 分財記(1429)에 관한 研究", 古文書研究 1, 韓國古文書學會.